

은혜와 진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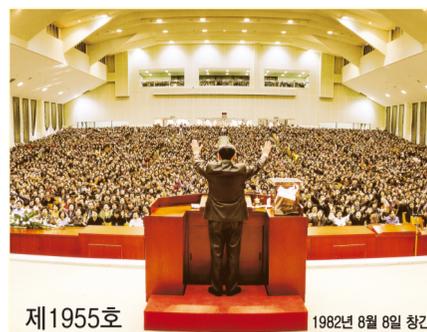
2026년 3월 8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55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유의 은혜와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배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 미 경 -

저는 1992년에 결혼을 하고 안산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매주 빠짐없이 집 현관에 꽂혀 있는 은혜와진리소식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타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저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신신당부하며 교회를 잘 선택해서 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혜와진리소식지에 실린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와 교인들의 간증문 등을 읽으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고 결심하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하는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3남매를 낳아 기르며 살던 중에 남편이 지인의 빚보증을 선 것이 화근이 되어 월급이 압류되고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숨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때부터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엄마에게 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을 눈물로 호소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도움을 배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하늘을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이 일시에 뒤로 다 물러가서 사라지고 대신 하얀 구름과 맑고 파란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생활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매달 적은 월급을 받아서 아이 셋을 키우며 살림을 꾸리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큰 불편이나 어려움없이 생활하는 것이 매우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이를 교구 전도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며,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왜 몰랐을까. 이렇게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중에 수원시로 이사를 하였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던 큰딸이 뇌하수체에 혹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딸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어 무척 답답할 때에 제가 속한 교구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연수중이던 이름난 대학병원 교수님이 귀국과 동시에 딸을 진료하고,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도 잘 되었습니다. 건강해진 딸은 그 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큰딸이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던 작은딸이 갑자기 울면서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아파하며 고생하더니 성인이 되어서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몹시 힘들어하였습니다. 저는 두 딸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날에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라파의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엄마! 이제 피부가 가렵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밤마다 저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딸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딸 역시 언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았으나 할 정도로 지금 피부가 깨끗하고 몸이 건강합니다.

저의 막내아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대학교를 세 번이나 옮기면서 문헌정보교육을 전공하여 공부하였는데, 지난해에 치른 임용고시 필기 시험과 올해에 치른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졸업과 동시에 출근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내내 위로와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지난해에 저도 하나님께서 배풀어 주신 신유의 은혜 체험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허리가 아팠는데, 어느 때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리와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에 종양이 있다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전능하시고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유의 은혜를 바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고 병원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므로 예정된 날짜보다 몇 달이나 앞당겨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또한 잘 이루어져서 깨끗하게 종양이 제거되었습니다.

그 3개월 뒤에는 또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었고, 병원에서는 용종의 크기가 워낙 커서 암일 위험이 있으니 용종만 제거하기보다 대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도 금요기도회 등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역자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려했던 암이 아니었고 단순한 용종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회복하고, 지금 수구역장으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전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중에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귀중한 직분을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가족에게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배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교 대한하나님의교회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성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7단원 : 은혜로운 교회 생활)

(제40과) 열매 맺는 전도 생활

- **본문** : 디모데후서 4:1-8
- **요절** :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
- **찬송** : 271장(새찬송가 495장), 277장(새찬송가 499장)

이천년 전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날 극동에 위치한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으며, 벽안의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먼저 믿게 된 한국인 전도자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도할 사명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이 지구상에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인도하는 자의 손길이 없어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전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절실히 요청되는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령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전도 생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전도는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마지막으로 분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것이니 전도는 그들의 몫이며, 오늘날에는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역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전도한 내용(행 4:31)과, 특히 평신도였지만 능력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스테반과 빌립 집사에 대하여(행 6:8, 8:4~5), 더우기 스테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한 결과 복음이 예루살렘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더 광범한 지역으로 전파되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전도의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우를 보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저절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하신 성경 말씀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 있어서 전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 1:14)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 전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본격적인 전도 사역은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적극적으로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를 최대한 선용하여 전도할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입

니다.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기회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좀처럼 전도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도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지라도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내가 없으면 쉬이 낙심하고 자기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해서는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부단한 인내로써 오랫동안 전도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꾸준히 좋은 인간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하신 대로, 우리는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써 끈기있게 전도하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자주 누리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전도에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10~12) 하심으로, 고난을 무릅쓰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도의 상급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전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더불어 크게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장차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더욱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수고가 요구되지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혹 전도를 위해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므로 결코 낙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도의 사명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